

전북 여성 리더 140여명 한자리에

전주상의, ‘전북여성 리더스포럼’ 성료… 전북의 지속가능한 발전 공동 모색

전주상공회의소(회장 김정태)는 21일 전주상의 대강당에서 ‘전북여성 리더스포럼’을 성황리에 개최했다.

이번 포럼은 전북지역 여성 리더 간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지역 현안을 공유하며 전북의 지속가능한 발전 방향을 함께 모색하고자 마련됐다.

이날 포럼에는 새마을백일홍회 목영숙 명예이사장, 이정화 명예부이사장, 김숙정 회장, 소정미 한국여성경제인협회 전북지회 회장, 박금옥 한국여성벤처협회 전북지회 회장을 비롯하여 전북지역 내 여성 관련 단체 및 여성기업인 140여명이 참석해 지역 발전에 대한 공감과 협력을 다졌다.

특별강연에는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가 연사로 나서 ‘전북이 가는 길’에 대한민국이 가는 길이다’를 주제로 민선 8기의 핵심 국정 과제를 설명



전주상공회의소는 21일 전주상의 대강당에서 ‘전북여성 리더스포럼’을 성황리에 개최했다.

하고 전북의 변화와 혁신을 위한 비전과 전략을 제시했다.

김 지사는 전북특별자치도 출범을 비롯해 △도청 직원 참여를 통한 업무 혁신 △하이퍼뷰브 공모 △전북형 삼성 스마트팩토리 △새만금 이차전지

특화단지 △스타트업 생태계 구축 △바이오특화단지 도전 △세계한인비즈니스대회 △기업하기 가장 좋은 도시 △2036 전주 하계올림픽 유치 도전 등 10대 핵심 과제를 중심으로 도정의 철학과 주요 성과를 공유했다.

특히, “무모한 도전이라 여겼던 2036 전주 하계올림픽 유치가 도민의 간절함을 바탕으로 국내 후보지로 선정되는 성과를 이뤄냈다”며, “이제는 세계와 경쟁하는 더 큰 도전에 나서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이어 “도전 없는 성과는 없고 변화와 혁신 없이 미래를 준비할 수 없다”며, “이러한 변화의 중심에서 새로운 방향을 제시할 주역은 바로 여성 리더들”이라고 역설했다.

김정태 전주상의 회장은 “여성 리더들의 역량은 전북의 질적 성장을 견인하는 핵심 동력”이라며, “이번 포럼이 미래 비전을 공유하고 협력의 지평을 넓히는 뜻깊은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전주상공회의소는 앞으로도 여성 경제인을 비롯한 지역 여성 리더의 역량 강화와 교류 확대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오상근 기자



중소기업중앙회는 21일 오전 11시 30분,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한전KDN과 ‘중소기업 DX·AX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중소기업 디지털·AI 전환 맞손

중기중앙회-한전KDN, DX·AX 지원 위한 업무협약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는 21일 오전 11시 30분,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한전KDN(한전디지털)과 ‘중소기업 DX·AX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협약식에는 김기문 회장, 박상형 사장, 한병준 중소기업중앙회 AI디지털전략위원장 등 주요 관계자 10여 명이 참석하여 중소기업과 협동조합의 디지털 전환 및 AI 도입 지원을 통한 AI 3대 강국 도약에 뜻을 함께했다.

이날 한전KDN이 중소기업 공동사업의 효율성 제고 및 활성화를 위해 대기업·공기업 최초로 중앙회 ‘공동사업지원자금’에 출연하겠다고 밝혀 중소기업계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다.

‘공동사업지원자금’은 중소기업 협동조합법 제106조 제8항에 의거 중소기업중앙회에 설치한 민간 자

금으로 중소기업 간 공동사업의 기반 마련 및 활성화 등에 활용한다.

이번 업무협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중소기업협동조합 DX·AX 지원을 위해 공모형 공동사업 AX·DX 지원사업, 중소기업협동조합 디지털 수준진단 및 맞춤형 컨설팅을 실시할 계획이며, 둘째, ICT 중소기업의 SaaS 기반 판로 지원을 위해 한전KDN 오픈마켓(K-BCP) 입점 지원, 탄소중립, 글로벌 공급망 솔루션 이용 지원 등을 추진한다.

셋째, 중소기업 데이터 생태계 구축을 위해 한전KDN 데이터 센터(IDC) 내 협동조합·중앙회 전용 공간 제공, 양 기관 간 데이터 교류·결합·공동연구를 통한 정책개발 등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내용을 담았다. /오상근 기자

전북농협, 벼 육묘·신기술

전북 협의회 창립총회 개최

벼 육묘·신기술 전북협의회(협의회장 김기수 조합장)가 지난 18일 전북농협 회의실에서 협의회 소속 조합장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창립총회를 개최했다.

이번 창립총회에는 △임원진 선출 △협의회 규약 제정 △2025년 사업계획과 예산(안) 등을 의결하고, 공동육묘장 운영 활성화 및 드론모심기 보급 확대 등 영농지원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초대 협의회장으로 서군산농협 김기수 조합장 부회장은 하서농협 기세원 조합장과 감시는 서익산농협 김호순 조합장이 선출됐다.

김기수 초대 협의회장은 “드문드 드문 보급 활성화를 위해 벼 공동육묘장 설치·운영을 확대하고 회원 간 상호협력력을 통해 적극적인 농정활동을 전개하여 벼 육묘사업에 필요한 제도 개선 및 정책을 건의하겠다”고 말했다.

이정환 농협전북본부장은 “벼 재배 기반을 확대하고 신기술 보급을 지속적으로 확대하여 농업인들을 위한 영농 편의 제공과 농업소득 증대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전북농협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오상근 기자

위기지역 중소기업 위기대응 맞춤형 기술지원·사업화지원

전북테크노파크, 하반기 Stand-Up 프로그램 참여기업 모집 공고

(재)전북테크노파크(원장 이규택)에서 운영 중인 ‘전북위기지원센터’는 전북특별자치도 내 중소기업 밀집지역을 모니터링한 후 2025년 상반기 위기기업수가 ‘주의’ 및 ‘심각’ 단계로 결정된 밀집지역 소재 중소기업이 위기상황을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반기 Stand-Up 맞춤형지원(긴급차방지원)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있다.

본 프로그램은 중기부와 전북특별자치도가 지원하고 있는 ‘중소기업 밀집지역 위기대응 체계 구축사업’의 일환으로 지역경제의 핵심인 중소기업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주요 경기지표(사업장, 종사자, 총급여, 매출액 등)를

상시모니터링하고 기업이 체감하고 있는 위기상황 및 애로사항 등을 확인한 후 해당 밀집지역의 기업이 위기상황을 극복하고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중소기업 밀집지역은 ‘지역중소기업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제1항에 정의 규정에 따라 벤처기업집적시설,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 신기술창업집적지역, 산업단지, 지식산업센터 등으로 1만제곱미터 당 2개사 미만인 지역특화발전특구 및 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으로 지정된 공업지역 또는 생산관리지역은 모니터링 대상 밀집지역에서 제외되며, 밀집

지역별 위기장후 단계에 대해서는 전북위기지원센터에 문의하면 된다.

중소기업 밀집지역 위기대응 Stand-Up 맞춤형지원은 신청기업의 현장실사(위기진단 및 요건검토) 결과를 기반으로 기업의 니즈를 반영하여 기술지원(Tech-UP) 및 사업화지원(Biz-UP)을 맞춤형으로 제공한다.

기술지원 분야는 기술정보 분석 지원 및 기술 멘토링, 국내외 지적권 및 인증 지원 시험 및 성능분석 지원까지 총 3개의 프로그램으로 구성되고, 사업화지원 분야의 경우 마케팅 지원, 디자인 개발, IR 자료·투자계약서 작성지원, 물류비 지원 경영 개선 컨설팅으로 총 5개 지원프로그램으로 구성되어 있다. /오상근 기자

전북바이오융합산업진흥원, 전북형 헴프 산업 생태계 기반 구축 앞장

(재)전북바이오융합산업진흥원(원장 이은미, 이하 바이오진흥원)은 지난 16일부터 광주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으로부터 ‘마약류취급허가연구자’ 허가를 취득했다고 밝혔다.

이번 허가 취득은 바이오진흥원이 수행하는 ‘헴프 유효성분 정제 및 추출·분석 기술 고도화 사업’의 일환으로 헴프 유효성분의 고순도 추출 및 정제기술 개발, 정량·정성 분석법 확립, 원료소재 표준화 및 품질관리 체계 구축을 위한 합법적이고 과학적인

연구 수행 기반을 확보하게 된 데에 그 의미가 있다.

헴프(Hemp)는 대마초(Cannabis sativa L.)의 한 종류이지만 마약으로 규제되는 환각 성분(THC, 테트라하이드로칸나비놀)이 거의 없는 산업용 대마로 분류된다.

헴프에 풍부하게 함유된 CBD(칸나비디올)는 통증 완화, 항염, 불안 해소 등의 효과가 과학적으로 입증돼 의료·의약품·건강기능식품 분야에서 기능성 원료로 주목받고 있으며, 즐

임, 씨앗 등 전 부위를 활용이 가능한 식품, 화장품, 섬유소재 등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고부가가치 소재로 각광받고 있다.

국내 바이오·식품 산업에서 기능성 고부가가치 원료에 대한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바이오진흥원은 전북도의 우수한 농생명 인프라를 기반으로 전북형 헴프 산업 생태계 기반을 구축하고 고부가가치화 창출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방침이다. /오상근 기자

새 정부 에너지 정책 대응방안 모색

전북TP, RE100 에너지솔루션 2025년 제2차 운영협의회

전북테크노파크는 21일, 본부동 4층 대회의실에서 ‘RE100 에너지솔루션 얼라이언스 2025년 제2차 운영협의회’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는 이해원 의장(전주대학교 산학부총장)과 신원식 국장(전북특별자치도 미래청단산업국)을 비롯한 운영협의회 위원 20여명이 참석하여, 새 정부의 에너지 정책 기조에 대한 전북의 대응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RE100 에너지솔루션 얼라이언스는 2024년 5월 출범 이래 재생에너지 활용 확대와 지역 기반의 에너지 전환을 목표로 활발히 활동 중이며, 정책·수소·풍력·분산에너지 등 4개 분야를 중심으로 정기회의, 과제기획, 세미나·포럼 등을 통해 실질적 협업 모델을 확장해가고 있다. /오상근기자



이번 운영협의회는 RE100 전환을 위한 산·학·연·관 협력 네트워크 강화와 하반기 사업계획 논의, 그리고 신규 참여기관에 대한 가입증서 전달을 주요 내용으로 하였다. 이날 23개 기관이 새롭게 참여하면서, 얼라이언스는 총 88개 기관으로 확대되었으며, 지역 중심의 에너지 협력 생태계가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되었다. /오상근기자

구독 · 광고문의 063-288-9700



본인이 똥똥 하다고 생각하시면 몇 kg 정도 를 빼고 싶으세요?

뱃살, 내장지방, 체지방을 요요현상 없이
귀하가 원하는 만큼 쏙 빼수 있습니다

상담전화: 010-3655-9009
블로그: <http://kangsb1959.blog.me>
메일: ndtherapy119@gmail.com

효소다이어트, 해독 프로그램 전문